

聖書에 나타난 罪 概念에 관한 考察

柳 純 夏*

目 次

- I. 序 論
- II. 聖書에 나타난 罪의 語意
 - 1. 舊約聖書에 나타난 罪의 語意
 - 2. 新約聖書에 나타난 罪의 語意
- III. 人間과 罪
 - 1. 罪의 起原
 - 2. 罪의 結果
 - 3. 代表의 原理
- IV. 罪의 解決
 - 1. 舊約에서 罪의 解決
 - 2. 新約에서 罪의 解決
- V. 結 論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regarding to the consideration of concept of sin in the Bible. Although God points out the sin of man and punishes that of man, His goal is not the punishment itself bu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sin. His ultimate purpose is letting the man live as the people of God.

* 人文大學 教養科 教授

In introduction, I considered that how the doctrine of sin, the unique doctrine of Christianity, understands. That is, after the relationship with God was broken, a man separated from God and fell to the being of death.

In chapter II, the meaning of the word "sin"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was considered. The accurate comprehension of the word make us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In the third chapter, I considered in priority that where the sin of man arises from. Namely, a man came to fall due to an Angel's fall and all the descendants of Adam participate in Adam's sin, after all the man are born with the original sin.

In chapter IV, because Adam is the father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 of a man, we all are the sinner. We could solve the problem of sin through Jesus Christ only who is the second new Adam.

In conclusion, I came to know that how God solves the sin of man. God forgives us our trespasses. He never remember our sin and makes our sin not to be laid bare by nobody.

國文要約

이논문은 성서에 나타난 죄 개념을 고찰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벌하지만 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았다.

1장. 서론에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인 죄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죽음의 존재로 인간을 전락시켰다.

2장. 여기서는 신구약성서에 나타난 죄의 낱말의 뜻을 살펴보았다. 낱말의 정확한 이해는 그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3장.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도 타락하게 되었으며, 아담의 후손 전체는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되고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4장.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첫번째 아담이 인간의 시조일 뿐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음으로 또 다른 한 죄없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장.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가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죄의 문서와 또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누구도 다시 들추어 낼수 없도록 처리해 주심을 고찰하였다.

I. 序 論

다른 宗教와 달리 基督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敎理는 「罪」의 敎理이다. 聖書에서 「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¹⁾라고 宣言한다. 그리고 이 罪의 概念을 對人關係에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神人關係에서 규정짓고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1편 敎理 제3부 요리문답 제14문, 罪가 무엇입니까? 그 답에 「罪는 하나님의 法을 順從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럼으로 이 罪는 일반적으로 刑法이나 民法의 規定들을 犯했을 때 이야기되는 그런 법의 저촉으로서의 罪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理解되어야 한다.

罪는 人間의 不法性으로서 하나님께서 人間의 삶과 行爲 속에서 要求하시는 秩序를 拒逆하는 것이다.²⁾ 이것은 우리 人間에게 해당되지 않는 神의 主觀의 篡奪이요 創造秩序의 倒置이며 生命의 根源과의 決裂이다. 人間의 不法은 하나님의 성스러움

1) 롬 3:10~12

2) 유광웅, '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빛과 소금」 1987. 11호, p.40.

에 대한 拒逆으로서 또한 人間이 지닌 하나님의 形像과 自然의 法則을 깨뜨리는 것이다.³⁾ 그럼으로 罪는 오직 하나님과의 關係에서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關係에서 罪는 個人의 罪行爲를 구분하여 크다, 작다, 또는 무겁다, 가볍다고 判斷할 수 없다. 罪라고 할 수 없는 작은 罪가 있고 또는 100%의 순수한 罪가 있는 것이 아니다. 罪는 어떤 것이든 100%의 罪이고 또한 죽을 죄이다. 아담이 과일 한 입 깨문것, 적은것, 미미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른 罪가 되었다.

罪의 本質은 하나님과의 關係가 깨어진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心理的이거나 倫理的이거나 하는 概念으로 說明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神學的으로 罪의 本質과 起原을 說明할 때 創世記에 기록된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犯罪의 이야기를 든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命令을 어기고 罪를 犯한 根本動機를 驕慢이라 하였다.⁴⁾ 그는 스스로 自身の 支配者가 되기를 원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順從하기를 거부하였다.⁵⁾ 즉, 被造物이 創造主와 같이 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罪를 驕慢이라고 해석하는 神學者가 있다. 라인홀드 니이버의 해석을 따르면 聖書의 罪란 驕慢인데 人間の 교만과 權力에로의 意志가 被造物의 人間性을 파괴한다고 보고 罪의 宗教的 次元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하였다.⁶⁾

아담은 自己限界를 가진 被造物이었다. 이 被造物이 創造主와 같이 되려는 것이었고 아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自慢心을 품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과 같은 存在인양 생각하였다. 즉 “自己昂揚”이었다.⁷⁾ 어거스틴은 이 自慢心을 “concupiscentia”란 말로도 표현하였다.⁸⁾ 이것은 惡한 欲望 또는 情慾을 意味하는 말로서 이 歪曲된 意志를 가지고 바라서는 안될 것을 바라는 것이 罪의 發源⁹⁾이라 하였다. 結

3) Ibid.

4) J. L. 니이버 저, 徐南同 역, 基督教敎理史(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p.231.

5) Ibid.

6) 金燦國, 聖書에서 본 罪, 「基督教思想」, 1977. 4호, p.39.

7) 이장식, 罪의 敎理史的 考察, 「基督教思想」, 1977. 4호, p.50.

8) Ibid.

9) Ibid.

局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그가 주시는 福을 바라지 않고 利己的인 欲望을 품는 것이 罪의 根本이라는 것이다.

아담의 犯罪에 대한 根源的인 動機를 어거스틴 이후의 神學者들이 여러가지 말을 하였지만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宗教改革者 루터는 最上의 罪는 不信이요 最上의 義는 信仰이라¹⁰⁾ 하였고 칼빈은 모든 사악은 傲慢이 그 始作이었다. 그리고 '墮落은 不順從에서 始作되었다'¹¹⁾고 하는 것은 自慢心과 不順從을 犯罪의 原因으로 말하며 中世의 神學者도 罪의 原因을 "concupiscence"라고¹²⁾ 말하였다.

이렇듯 아담의 罪의 本質 또는 根本 原因을 이러한 말로서 규명한 것은 결국 罪는 하나님에 대한 人間의 反逆이란 事實을 말한다.

神學者나 聖書는 罪를 규정하고 露出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罪의 問題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救援의 役事를 보여주고 있다. 구약의 모든 予言者들도 그 社會惡을 고발하고 構造惡과 싸우면서 悔改를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신약에서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赦罪의 恩寵에 의한 사랑으로 罪의 中에서 벗어나 自由人 즉 하나님과 關係가 回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¹³⁾

이 赦罪의 은총을 알게되면 社會的 모든 罪惡과 대결하고 정복하는데 있어 하나님이 歷史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事實을 考察하려고 한다.

10) 이장식, 基督教思想史(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148.

11) John Calvin Trans, Henry Bereridg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II (Michigan: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p.225.

12) 이장식, 罪의 敎理的 考察, p.50.

13) 롬 8:15.

II. 聖書에 나타난 罪의 語意

여기서는 聖書에서 罪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것은 聖書에서 罪란 뜻으로 사용한 여러 낱말들을 살펴 罪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자 한다.

1. 舊約聖書에 나타난 罪의 語意

거룩하고 義로우신 하나님을 中心으로 하는 舊約聖書가 罪의 問題를 진지하게 擧論, 취급하는 것은 當然하고, 이 傳統은 新約聖書에도 強하게 繼承되고 그리스도 교의 근간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罪와 對決은 罪를 나타내는 用語의 豊富함에도 잘 나타나 우리 聖書에 있어서 「罪」, 「罪惡」, 또는 「허물」로 번역된 原語 名詞만으로도 17종에 미치고, 그것에 거의 同義語로서 쓰여져 있는 「惡」, 「가증한 일」, 「어리석음」等 類緣語가 또한 실로 많다.¹⁾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단어를 여기서 考察하도록 하겠다.

1) 우선 같은 기본적인 意味를 가진 세 개의 낱말로 이루어진 하나의 어군에서 부터 시작하자. 헤트(chet)란 말이 있는데 30회 이상이나 나온다. 즉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²⁾, 「우리의 罪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나이다」(시103:10). 또 하타아(chataah)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많이 使用되지 않아서 7번 나온다. 즉 「그 罪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1). 다음으로 핫타드(chattath)란 單語는 170회 정도 나온다.³⁾

이 세 개의 낱말은 모두 같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낱말의 뜻은 앞으로 新約聖書에서 살펴 볼 하마르티아(hamartia)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⁴⁾ 즉 「과녁을 맞히지 못한다」, 「벗어난다」에서 「목표 또는 중심을 벗어남, 실패함, 틀

1) 이성호 편, 새성서대사전, (서울: 성지사, 1978), p.1984.

2) 시 51:9.

3)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使從信經 平解(서울: 교문사, 1972), p.374.

4) G. A.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New York: Abingdon Press, 1962), Vol.IV, p.361.

림, 잃음, 그릇함, 벌」⁵⁾의 意味로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人間이 그 本來되어야 하는데로부터 그리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부터 벗어난 人間の 罪를 意味한다. 聖書는 人間이 가지고 있는 最高의 可能性을 보고 있다.⁶⁾ 그런데 人間은 하나님에 뜻하신 「義」와 「無欠」과 「完全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性品대로 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人間은 그것을 따르는데 失敗하였다. 그러므로 舊約에서 「罪」를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性品과 그 法에 對抗하여 「反對하는 것」과 그것을 「犯하는 것」과 그가 세우신 秩序에 「不一致」(non-alignment)함을 뜻한다.⁷⁾ 결국 罪란 失敗를 말한다.

2) 야원(āwōn)이란 말이다. 이 말의 뜻은 「歪曲된 행위」(acting crookedly, wrongly)를 意味한다.⁸⁾

이 낱말에 관련해서 두 가지 事實을 注目하여야 한다. 이 낱말의 基本的인 概念은 歪曲 또는 曲解이므로, 罪는 바른 것에 대한 歪曲 또는 曲解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야원(āwōn)이란 말은 特定の 個人的인 行爲를 말하기 보다는 일종의 行爲의 性質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⁹⁾ 故로 그러한 性質이 어떤 당연한 結果를 招來한다. 그 個人的인 結果는 犯罪(guilt)이며 그것이 바로 야원(āwōn)이란 말이 흔히 의미하고 있는 바이다. 더우기 犯罪에는 당연한 結果가 따른다. 즉 犯罪의 結果는 刑罰이며, 이것 역시 야원(āwōn)이란 말이다. 가인은 「내 罪罰(刑罰)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창4:13)라고 부르짖은 말이 바로 이말이다.

즉 罪罰은 가인의 內的인 心理的인 不安狀態와 苦痛을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反抗과 不服의 結果로 나타난 罪惡의 狀態를 말해주고 있다.

結局 이 用語는 意圖的이고 意識的인 惡을 나타내고, 罪의 內容의 측면을 보인다고 말해진다.

3) 페샤(Pesa=Pe(a)sha)란 말이다. 이 말의 一般的인 意味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5) 창 20:9, 출 10:17, 사 20:16, 읍 5:24, 잠 19:2, 기타

6)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op. cit., p.375.

7) Stefan Porubucan, Sin In The Old Testament(Herder Roma, 1963), p.164.

8) Ibid., p.15.

9)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op. cit., p.375.

대하여 「背叛」(to rebel, revolt, against)함을 말한다.¹⁰⁾ 사람에게 대하여 背叛하는 경우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왕상12:19)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왕기상 8장 50절에 「주께 犯罪한 百姓을 容恕하시며 主께 犯한 모든 허물을 赦하시고」란 말씀 중에서 허물(transgressions)이란 말이 곧 페사(pesa)이다. 이 用語는 神學的인 概念으로서 單純한 肉體的인 失手나 道德的인 失敗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故意的으로 反抗하거나 不順從을 意味한다.

舊約에서 罪를 意味하는 單語들 중에서 神學的으로 가장 뜻깊은 하나님께 대한 叛逆이란 意味를 지닌 單語이다.

創造主인 하나님에게 服從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죄로 여겼고, 하나님께 反抗하거나 그 法을 離脫하는 것을 지층하는 用語이다. 이 말은 영어성경 흠정역(King James Version)에는 “transgressions”로서 번역되었고¹²⁾ 우리말 성경에는 「허물」로 번역되었다.

이 낱말은 罪를 하나님께 대한 背叛이라고 보며, 罪에 대하여 服從에 대한 거부, 自己方式에 대한 固執, 被造物로서 創造者에 대해 겸허하게 服從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以上에 언급한 以外에도 라(Ra)의 뜻은 나쁘다(bad, evil)의 뜻으로 사람의 성질의 惡함을 나타내는 罪의 概念이다.¹³⁾

라샤(Rasha)란 用語는 「사악」(wickedness)의 뜻으로 道德的으로 墮落한 內面狀態를 가리키기도 한다.¹⁴⁾

一般的으로 히브리인들은 罪와 그 結果로서 생긴 有罪사이에 特別한 區別이 없다.

10) Stefan Porubucan, op. cit., p.24.

11) 위의 背叛과 같은 내용으로 使用된 성경구절 얼마를 예를 들면, 王下 1:1, 王下 3:5, 王下 8:20, 대하 21:8, 10 等

12) G. A. Buttrick, ed, op. cit., p.361.

13) Charles F. Pfeiffer, ed, Wycliffe Bible Encyclopedia, (Chicago: Moody Press, 1975), Vol.2, p.1594.

14) Stefan Porubucan, op. cit., p.34.

그러나 舊約聖書에 있어서 특히 有罪를 나타내는 어휘로서 「아삼」(asham)(guilt)란 말로서 주로 레위기, 민수기와 에스겔書에서 성막과 성전 儀式에 제한적으로 使用되는 用語다.¹⁵⁾

이 以外도 罪를 지층하는 用語가 있으나 重要한 뜻을 나타내는 用語를 考察하는 程度에서 다음 新約에서 罪에 대한 用語的인 意味를 살필려고 한다.

結局, 舊約聖書에서 罪는 하나님께 대한 人間의 叛逆,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試圖라고 보며 이것은 人間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最大의 罪惡임을 聖書는 밝히고 있다.

2. 新約聖書에 나타난 罪의 語意

舊約聖書에서 罪란 用語의 뜻은 罪는 失敗이며, 歪曲이며, 背叛이며, 또 罪를 犯한 人間이 드디어 떨어지게 되는 狀態이다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新約聖書에서 使用하는 罪를 지층하는 用語의 뜻을 考察해 보자.

1) 新約에서 罪(hamartia)는 舊約의 罪概念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고, 그 대표적인 罪의 회랍어 名詞 hamartia는 動詞 hamartano를 語源으로 하고 있다.¹⁶⁾

하마르티아(hamartia)를 罪(sin)으로 번역하고 舊約의 하타(hata)와 같은 뜻으로 使用되어 「과녁을 맞히지 못한다」(to miss the mark)란 뜻으로 「일을 잘못한다, 失敗한다」 등을 意味하는 뜻으로 많이 使用되지만 동시에 「범죄」(guilt)의 意味도 포함하고 있다.¹⁷⁾ 누가福音에 있는 主析禱文에 나오는 말도 이 낱말이다.

「우리 罪도 사하여 주옵시고」(눅11:4) 또 이말은 罪를 일컫는 바울의 위대한 用語이다. 바울은 하나의 個人的인 行動으로서의 罪, 하나의 狀態와 性質로서의 罪, 人間을 支配하고자 하는 人格化 된 힘으로서의 罪를 일컬어 이 用語를 使用하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罪가 世上에 들어오고 罪로 말미암아 死亡이 왔다(롬5:12).

15) G. A. Buttrick, op. cit., p.362.

16) 이성호편, op. cit., p.1986.

17)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사전(서울:기독교지혜사, 1981), Vol.7, p.541.

너희는 罪로 너희 죽을 몸에 王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롬6:12).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罪니라(롬7:17)고 말하며, 罪를 目標에 명증시키는 데 失敗한 것이라는 概念으로 생각한다면 罪는 人格化되고, 普遍化되고 그리고 非神學化 된다.¹⁸⁾ 원래 인간이 지음받은 그 뜻대로 最善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들이나 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最善을 다해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關係에 있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最善의 關係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罪의 概念은 모든 人間들을 罪아래 붙잡아 놓는다. 이것이 舊約과 新約 全體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罪의 概念이다.

2) 파라바시스(parabasis)란 말은 파라(para)라는 말과 바시스(basis)의 합성어로서 파라(para)라는 말의 意味는 「넘어서」(across)이고 바시스(basis)는 「간다」라는 뜻의 바이노(baino)라는 말로부터 온 動名詞이다. 그럼으로 파라바시스(Parabasis)라는 말은 「넘어간다」(stepping over)¹⁹⁾는 뜻이다. 卽 善과 惡 사이에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넘어가는 것이 곧 罪가 된다는 意味다.²⁰⁾ 바울은 「律法이 없는 곳에는 犯함도 없느니라」(롬4:15)

파라바시스(parabasis)는 特權에 따르는 責任性을 우리에게 強力하게 생각나게 하는 말이다. 野蠻은 文明人이면 처벌을 받을 事項에 대해서도 責望받지 않는다. 좋은 환경에서 善人이 될만한 機會를 갖춘 사람과 그런 機會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과 그 行爲에 대한 問責이 같을 수 없다. 知識이 보다 많고, 機會가 보다 많았으며, 特權이 주어졌다면 그의 罪過 역시 무거운 것이다.

3) 파라프토마(paraptoma) 이 말의 뜻은 線을 넘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意味한다. 영어성경 개역 표준 성서(RSV)에서는 파라프토마(paraptoma)는 「罪過」(trespass)라고 번역한다. 파라바시스(parabasis)와 파라프토마(paraptoma)사이에는

18)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op. cit., p.377.

19) Stefan Porubucan, op. cit., p.117.

20)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op. cit., p.378.

차별이 없는것 같이 보인다. 만일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면 파라프토마(paraptoma)가 파라비스(parabasis)보다 덜 고의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파라비스(parabasis)는 선과 악 사이의 線을 알면서, 또 그 線을 넘어선다는 것도 잘 알면서도 그 線을 故意的로 넘어가는 것이다.²¹⁾ 반면에 파라프토마(paraptoma)는 부주의와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그 線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말은 故意的로 罪에 빠지기 보다는 注意와 警戒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失手와 잘못 그리고 과오를 의미하고 있음을 가르킨다.²²⁾

4) 아노미아(anomia)이 말은 「不法」(lawlessness, transgression of law)을 意味한다.²³⁾ 이 말은 요한 1서 3장 4절에 나오는 罪에 대한 定義로서 「罪는 不法이라」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가장 故意的로 犯하는 죄를 나타내는 말이 될 것이다. 人間이 法을 알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拒否하고자 決心하지 않는 한 不法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自慢心을 가지고 自己의 뜻과 欲望을 궁극적인 法으로 삼는 사람의 罪로서 하나님의 法을 알면서도 自己 自身이 選擇한 길을 걷는 것으로서 아노미아(anomia)는 하나님을 그의 王座로부터 끌어 내리고 自身을 그 王座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5) 아세베이아(asebeia)란 말은 敬畏와 敬虔에 反對되는 行爲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예와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拒否하는 「不敬」 또는 「不敬虔」(ungodliness, impiety)²⁴⁾. 바울은 牧會書信에서 「妄靈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敬虔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딤후2:16)라고 한 말에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6) 아디키아(adikia)란 말은 사람이 따라서 살아가도록 人間에게 내려주신 「標準」이 있다. 그 標準을 받아들이기를 拒否하는 것이다. 요한 1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不義가 罪로되」로 사용되어 「不義」(unrighteousness)로 번역하였다.

7) 오페일레마(opheilema)란 말은 主祈禱文에서만 볼 수 있는 말로 「부채」(debt)

21)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op. cit., p.379.

22) Ibid., p.380.

23) Stefan Porubucan, op. cit., p.114.

24) Ibid., p.116.

를 뜻한다.²⁵⁾ 즉, 「우리가 우리에게 罪지은 자를 赦하여 준것 같이 우리 罪를 赦하여 주옵시고」(마6:12)을 「빛진자를 탕감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빛도 탕감하여 주옵시고」란 뜻이 된다.

8) 파라코에(parakoe)란 말은 「不順從」(disobedience)의 뜻으로 하나님께 대한 不順從(disobedience toward God)²⁶⁾을 意味한다. 바울은 「한 사람의 順從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罪人 된것 같이」(롬5:19)로 번역하였다. 즉, 人間의 內面에서건 外面에서건 상관없이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音聲을 묵살시키는 故意的의요 自發的인 귀머거리(不順從)을 意味한다.

9) 헛테마(hettema)란 말은 모든 종류의 敗北를 意味하는 말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피차 訟事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허물을 英語聖經 KJV에서는 “fault”로 번역하는 가 하면 The Living Bible에서는 「서로 소송하는 것 自體가 너희의 패소(defeat)이다」로 번역하였다. 즉 소송을 함으로 너희는 표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과 또 罪란 惡과의 싸움에서 敗北한 善이다.²⁷⁾

以上에서 新約聖書에서 罪로 使用하는 用語를 살펴본대로 이 모든 罪의 概念에 해당되지 않는 存在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罪를 犯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바울의 고백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25) G. A. Buttrick, op. cit., p.371.

26) Ibid., p.371.

27) W. 바클레이 저, 서기산 역, op. cit., p.384.

Ⅲ. 人間과 罪

1. 罪의 起原

1) 天使 중에서 罪의 起原

人間生活에 말할 수 없는 悲運을 초래하는 놀라운 勢力인 罪惡은 어떻게 起原하였던 것인가? 罪惡의 起原은 가장 깊은 哲學的 神學的 難題들의 하나로 항상 고찰되어 온 것이다.¹⁾

惡의 起原이 宗教들의 주의를 끄는 難題로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啓示宗教 以外的 宗教界에서는 이것의 올바른 해결을 發見하지 못한다.²⁾

聖經은 世界에 있는 道德的 害惡을 罪로, 즉 하나님의 律法의 違犯으로 가르친다. 또한 성경은 사람을 本性的인 罪人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罪는 어떤 經路를 통하여 人間을 罪人되게 하였는가를 考察해 본다.

聖經에 依하면 人類의 最初의 犯罪는 우주에서의 起原은 아니다. 그 犯罪는 被造物인 사람의 自由的인 行動이지만 外界로부터 試驗을 받아 떨어진 일이다. 즉 사람보다 앞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犯罪한 다른 어떤 人格的 存在가 있어서 사람을 試驗한 것이었다. 故로 罪의 起原을 그 試驗者에게서 찾아 보아야 한다. 罪는 最初로 地上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접 面前에서, 그의 寶座앞에서 일어났다.³⁾ 하나님께 叛抗하려는 意慾이 天使들의 마음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많은 天使들을 善하게 創造하셨는데 그들 중에 타락이 있어 큰 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離反하므로 「犯罪한 天使들」⁴⁾이 생겼다(벧후2:4). 예수님은 이들을 「원수 마귀」(마13:24, 25)라고 하였다. 이들이 墮落한 原因을 自身の 아름다움으로 인한 自慢과 스스로를 높이려는 驕慢으로 因하여 타락하였다(겔28:17, 딤후3:6, 사14:12~

1)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Vol.Ⅲ, p.143.

2) Ibid., p.143.

3) Ibid., p.146.

4) Ibid., p.146.

14). 그러므로 世上의 모든 惡과 罪는 사단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

이 天使가 언제 墮落하였는지에 대해서 聖經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쳐 「처음부터 殺人者요 거짓말 장이」(요8:44)라고 하였고, 요한 1서 3장 8절에 「魔鬼는 처음부터 犯罪함이니라」하였는데 一般的으로 이 「처음부터」는 人類歷史의 始初를 意味한다.⁵⁾ 이 論據는 하나님께서 創造를 畢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甚히 좋았더라」(창1:31)는 天使까지 포함한 被造物 모두가 善하고 아름다웠음을 뜻한다. 고로 天使의 墮落은 창조 제 6일 이후로 본다. 反面에 天使의 타락의 시기를 창세기 1장 1절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天使들이 墮落한 原因에 대해서 바울의 書고에서 찾을 수 있다. 「교만하여져서 魔鬼를 定罪하는 그 定罪에 빠질까 함이요」(딤후3:6) 한 내용에서 처럼,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기를 慾望하는 驕慢의 罪였음을 말해준다. 이를 유다書에서는 「自己地位를 지키지 아니하고 自己處所를 떠난 天使들」(유6)이라 한 것으로 봐서 그들은 自己들의 職務와 또 權能과 地位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罪를 하나님과 같아 지려는 「慾望」이었다면 그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叛逆」하는 罪로 試驗하였는지를 理解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집작컨데 天使의 罪는 故意的인 行動이었은즉 성령의 定罪를 받아 「永遠한 罪에 處하는」(막3:29) 것으로 그들은 治療方法이 없게 犯罪하였다. 밀톤(Milton)의 「실락원」의 첫 부분에 있는 사단의 獨白에서 悔改의 의 思想 自體를 拒否하고 「惡이여 네가 내 善이 되라」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있다.

2) 人類中에서 罪의 起原

人類 最初의 罪는 創世記 3장에 기록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에덴낙원에서 誘惑者인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에 對抗하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뱀이 하와를 誘惑할 때 善惡을 알게하는 나무인 禁果를 따먹지 말라고한 하나님의 命令에 不服從하도록 誘惑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善惡을 알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고 하였다. 結局

5) Ibid., p.146.

시험자는 하나님의 禁命을 違犯하여도 죽지 않으리라는, 사람이 그 實果를 먹으면 知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먹지말라고 하셨다는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不信을 이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慾望이 하와를 支配하게 되고, 「女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智慧롭게 할 만큼 貪스럽기도 한 나무」(창3:6^上)여서 女子도 따먹고 또 「自己와 함께한 男便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3:6^下)라고 하였다.

聖書學者들 중에는 하와가 禁해된 實果에서 발견한 삼중호감은 요한1서 2장 16절에서 언급된 三重 정욕(肉身의 情慾과 眼目이 情慾과 이 생의 자랑)과 같다고 지적하였다.⁶⁾ 그 나무가 먹음직하게 보인 것은 肉身的 情慾이요, 보암직하게 보인 것은 眼目的 情慾이요, 智慧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自我 주장함을 가르키는 이 생의 자랑이라 보인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慾望은 곧 人間의 被造性的 限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位置와 同等한 自格과 權利를 가지려는, 다시 말하면 人間의 自己絶對化를 바라는 慾心이라 하겠다.⁷⁾ 그들은 獨自적으로 善과 惡을 알고 모든 拘束에서 解放되어 自身들이 모든 것의 主人이 되고 法이 되고자 하는 慾望 때문에 하나님의 命을 거스린 것이다.⁸⁾

不服從으로서의 罪는 단순히 最初의 人間이 하나님에게 不服했을 때에 始作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解放되어 完全한 自由를 누리려고 했으며, 또 완벽한 知識을 所有하고자 했던 것이다.⁹⁾ 즉, 有限한 存在가 無限을 所有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人間은 自己의 有限性的 不安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 혹은 權力을 가지려는 意志의 支配를 받아 하나님께 不順從함으로써 被造性を 忘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犯罪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이다. 罪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關係를 깨트리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 罪로 因해서 人間은 죽음의 存在로 전락하여 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창3:19).

6) Ibid., p.154.

7) 김찬국, op. cit., p.39.

8) 이영선, 구약성서에 나타난 죄 개념 연구(장로회신학 대학원, 미간행, 1987), p.20.

9) Ibid., p.20.

그리하여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罪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고 말하고 있으며 시편기자는 「내가 罪惡中에 出生하였음이여 모친이 罪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 하였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罪가 世上에 들어오고 罪로 말미암아 死亡이 왔다」(롬5:12)이 世上에 存在하는 罪는 그 責任으로 死亡이란 명에로서 人間을 누르고 있다. 즉, 犯罪의 代價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롬6:23). 그러나 이 罪는 사단에게서 起因하였고, 人間에게 罪를 짓도록 誘惑한 存在도 사단이다. 그래서 人間은 部分的으로나마 그들의 犯罪의 責任을 사단에게 돌리려고 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然이나 罪나 죽음은 犯罪한 人間에게 마지막 單語는 아니다.¹⁰⁾ 그것은 聖經은 犯罪로 因한 死亡만을 宣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을 宣言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者들의 첫 열매가」(고전15:20) 되셨기 때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者들에게는 罪에서 解放되고 죽음은 종말을 고하고 罪人은 聖徒가 되는 것이 聖經의 주장이다.

3) 原罪의 形成

原罪는 한 人間이 처음으로 지은 罪를 뜻하지 않는다. 原罪는 人間 歷史에 있어서 最初를 뜻한다.¹¹⁾ 즉, 아담이 지은 最初의 罪를 가르킨다. 이 아담의 罪는 아담 한 사람의 罪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로 인하여 全人類가 아담과 함께 罪人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담이 그의 創造主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靈的 生命이 되었던 것과 같이, 創造主에게서 떨어진 것은 靈魂의 죽음이 되었다.¹²⁾ 처음에 그를 훌륭하게 장식했던 智慧와 힘과 성결과 진실과 公義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無智와 無力과 불결과 허영과 불의 등의 가장 醜惡한 병들이 생겨난 벌을 받은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後孫까지도 끌어넣어 같은 不幸에 잠기게 만든 것이다.¹³⁾ 그것은 아담은 始祖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人間性의 뿌리였으며, 따라서 그가 腐敗한

10) 정인찬편, p.545.

11) 정인찬편, op. cit., p.548.

12) John Calvin 저, 김종흡의 3인 역, 基督教綱要^上(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369.

13) Ibid., p.369.

때에 人類가 당연히 腐敗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¹⁴⁾ 바울은 이 事實을 아담과 그리스를 비교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罪가 世上에 들어오고 罪로 말미암아 死亡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罪를 지었으므로 死亡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하였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王노릇 하리로다(롬5:17)」로서 罪와 죽음은 아담을 통해 잠입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결론이 따른다.¹⁵⁾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고(고전15:22) 「本質上 震怒의 子女」(엡2:3)로 宣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모태에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¹⁶⁾ 바울이 「本質」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가 아니라 分明히 아담에게서 腐敗한 것을 意味한다.¹⁷⁾

결국 아담은 自己를 腐敗시키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後孫에게까지 感染되고 蔓延되게 한 罪를 原罪라 부른다.

原罪에 關한 敎理는 人間이 얼마나 하나님의 恩惠를 必要로 하는가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救援하시는 役事가 모든 人間에게 絶對적으로 적용되며 그 누구도 이 救援을 얻어야 하며, 또 이 救援 役事に 누구도 能動的이건 受動的이건 전혀 干여할 수 없고 단지 自己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내어 맡길 수 있을 따름이다.

2. 罪의 結果

1) 모든 人間이 罪人됨

하나님의 命令에 不服從하고 반역한 아담의 罪를 原罪로한 人間社會의 모습은 모든 人間이 罪人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創世記 1~11장에서 보여주는 人間墮落史 그대로이다. 아담의 犯罪 以後 가인이 兄弟 아벨을 殺人한 일, 「人間の 罪惡이 世上에 貫盈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計劃이 恒常 惡할 뿐임을 보시고」(창6:5)

14) Ibid., p.371.

15) Ibid., p.372.

16) Ibid., p.372.

17) Ibid., p.372.

大洪水로 審判하신 일과, 노아의 醜態, 베벨탑 이야기 등全體 文脈에서 人間의 驕慢의 罪가 어떠한 것이며 人間이 언제나, 얼마나 깊이 罪에 侵害되어 있는지를 말한다. 그러나 罪는 人間에게 本質的인 것은 아니다.¹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創造의 冠이며, 하나님의 形象이며 에덴 낙원의 주민이다.¹⁹⁾

하나님은 人間을 創造하여 生命을 주어 살도록 약속을 하면서 人間과 關係를 맺으려고 했지만 人間은 自己의 有限性的의 不安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 혹은 權力을 가지려는 意志의 支配를 받아 하나님께 不服從함으로써 하나님과의 關係는 깨어졌다.²⁰⁾ 이때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形象을 잃었을 때에 自己만이 잃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잃게 한 것이다.²¹⁾ 그 천품은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人類全體를 위해서 주셨다. 그럼으로 아담이 빼앗겼을 때에 人間性이 벌거숭이가 되고 빈궁하게 되어, 마치 썩은 뿌리에서 썩은 가지가 나옴 같이 영경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음 같이 그의 後孫대대로 아담의 腐敗는 後孫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 것이다.

聖經에는 사람의 普遍的인 罪惡性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犯罪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며」(왕상8:46) 또 「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者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無益하게 되고 善을 행하는 者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1~12) 하였고 예수님도 姦淫하는 女人을 現場에서 잡아온 무리들을 向하여 「너희 中에 罪없는 者가 먼저 돌로 치라」(요8:7)는 말씀에 모두가 良心의 苛責을 받아 모두가 물러갔다(요8:9)는 기사에서 罪가 얼마나 普遍的인가를 잘 지적해 준다.

이 罪의 普遍性은 이미 사람의 存在 始初에서부터 始作되었다. 다윗은 告白하기를 「내가 罪惡 中에 出生하였음이여 母親이 罪 中에 나를 孕胎하였나이다」(시51:5) 하였고, 이것은 모든 人類가 아담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다」(욥14:4)라고 한 말에서 잘 표

18) 이성호편, op. cit., p.1985.

19) Ibid., p.1985.

20) 김찬국, op. cit., p.40.

21) John Calvio, 김종흠외 3인 공역, op. cit., p.373.

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肉으로 난 것은 肉이요」(요3:6)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그 普遍性을 말해주고 있다. 바울 에베소書에서 本質上 진노의 子女(엡2:3)라 하였는데 이 「本質上」이란 말은 生後에 취득된 것과 區別하여 生得的 원시적 무엇을 지시한다.²²⁾ 바울같이 重生되고 聖化된 人物도 自己가 「願함은 내게 있으나 善을 行하는 것은 없노라」(롬7:15, 18, 24)라고 한 自歎에서 그 罪가 얼마나 근원적인가를 말해준다.

罪의 罰인 死亡은 自意識的인 選擇을 行하여 보지 않는 嬰兒들에게도 임한다는 事實은 그들에게도 罪가 存在한다는 것을 含意한다.²³⁾

罪는 아담에게서 始作되어 모든 後孫을 罪의 멍에로 人間을 구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分明히 보여준다.

2) 人間の 힘으로 罪를 해결할 수 없음

「罪의 샅은 死亡」(롬6:23)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墮落한 後에도 道德的 性質은 잃지 아니 하였다. 故로 罪는 惡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審判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罪지은 人間은 하나님의 낮을 避하여 숨으며(창3:8) 도리어 世上의 風俗을 좃고 空中의 權勢잡은 者를 따라 살아감으로 自然的으로 不服從의 아들들 가운데서 役事하는 靈의 支配를 받음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死亡이 王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一生에 매여(히2:15) 종노릇하나 결국 죽게 되며 그리고 地獄의 영영한 불에 던지울 수 밖에 없다(마25:41).

聖書는 人間은 죽음의 存在이지만 죽음의 存在로 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 의 길을 하나님편에서 열어 주심을 宣言한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選擇하여 한 새로운 民族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役事요 마침내 그의 獨生子를 보내심으로 그 救援을 完成한다. 즉, 刑罰과 救援 全體는 전적 하나님의 主權下에 있다.

22) 박형룡, op. cit., p.188.

23) Ibid., p.189.

3. 대표의 原理

우리는 때때로 아담 個人의 罪가 오늘의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聖經全體는 이 대표의 原理로 가득차 있다.²⁴⁾ 아담의 罪惡이 그의 後孫에 轉嫁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롬5:15) 또한 「仁慈를 千代까지 베풀며 惡과 過失과 罪를 容恕하나 刑罰받을 者는 決斷코 免罪하지 않고 아비의 惡을 子與孫, 三·四代까지 報應하리라」(출34:7)고 하시었다. 가인에게 宣告된 詛呪는 後孫에게까지 미쳤다. 에서가 판 長子基業은 그의 後孫을 하나님의 百姓의 聖約에서 排除되게 하였다.²⁵⁾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에는 그의 妻子와 後孫들이 그의 아비의 罪로 因하여 멸망하였다(민16:1~33). 이스라엘 첫 王인 여로보암의 罪와 그 時代 사람들의 罪는 영구적으로 열지파의 운명을 작정하였다.²⁶⁾ 유대인들이 예수를 十字架에 못박아 달라고 要求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子孫에게 돌리소서」(마27:25)하고 자초한 詛呪는 離散된 이스라엘을 오늘도 괴롭게 하고 있다.²⁷⁾ 유대인들은 모세나 先知者들이 말한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父祖들의 罪의 刑罰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救援의 全意匠도 같은 원리로 되어 나아간다.²⁸⁾ 그리스도는 그 百姓의 代贖者이다. 故로 그들의 罪는 그리스도에게 歸與되고, 그의 義는 저희들에게 歸與되는 것이다. 聖書를 읽는 이는 성경 모든 곳에서 父母가 子孫을 대표하고 族長이 그 部族을 代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罪價를 대신 받는 이념은 舊約聖經에 있는 모든 贖罪的 헌물과 新約時代에 代贖罪 根抵에 자리하고 있다. 罪를 담당한다는 것은 聖經의 用語대로 罪罰을 담당함이다. 舊約의 짐승의 犧牲祭祀는 獻物을 드리는 者의 罪를 담당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표가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罪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詛呪를 받으시고

24) 로레인 빅트너, 칼빈主義 豫定論(서울:백합출판사, 1972), p.95.

25) Ibid., p.95.

26) 北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시대부터 우상숭배로 인하여 B.C 721년에 앗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27) 로레인, 빅트너, op. cit., p.96.

28) Ibid., p.96.

律法의 형벌을 받으셨다.²⁹⁾

聖經은 이것을 예수의 하신 일이 무엇임을 더욱 分明히 하고 있다. 「한 사람의 順從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罪人 된것 같이(롬5:19)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罪가 世上에 들어오고 罪로 말미암아 死亡이 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罪를 지었으므로 死亡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한 犯罪로 많은 사람이 定罪에 이른것 같이(롬5:18) 등의 이 말씀이 아담의 모든 罪人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後孫들도 그와 함께 定罪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아담은 단순히 人類의 始祖가 아니라 全人類의 代表者이었다. 그와 人類의 關係가 얼마나 밀접하다는 事實을 認知한다면 그의 罪가 全人類에게 미쳐진다는 事도 認知하게 된다.

IV. 罪의 解決

1. 舊約에서 罪의 解決

聖經에서 罪를 強하게 지적하는 것은 그 罪로 因하여 刑罰을 가하기 爲함이 아니다. 도리어 罪의 問題의 解決을 爲한 하나님의 救援의 役事를 宣言한다.

1) 悔改를 통한 罪의 解決

하나님은 人間의 罪를 審判하신다. 즉 아담의 罪를 罰하셨고 그 外에도 個人的으로 또 家族的으로 民族的으로 犯罪하였을 때 罰을 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審判自體가 目的이 아니시다. 審判을 통해서 人間을 覺醒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悔改를 독촉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줄 아는 人間을 높히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다룬다.¹⁾

29) Ibid., p.97.

1) 김찬국, op. cit., p.46.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습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 13 : 22)하셨다. 다윗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곧잘 犯罪하기도 하였다. 나단 先知者가 와서 그의 罪를 지적하였을 때 「내가 여호와께 罪를 犯하였노라」(삼下12 : 13)고 悔改의 自服을 하였다. 그에 대해서 나단 先知者도 「여호와께서도 當身の 罪를 赦하셨다」(삼下12 : 13)고 말한다. 시편에서 다윗은 罪를 지적받은 心情을 표현하기를 「내가 吐說치 아니할 때에 終日 呻吟하므로 내 뼈가 衰하였도다. 主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津液이 化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32 : 3~4) 하였고 다음에 「主께 내 罪를 아뢰고 내 罪惡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主께서 내 罪의 惡을 赦하셨나이다」(시32 : 5)고 하였다. 그는 自己의 罪惡에 대해 告白하기를 「내가 罪惡中에 出生하였음이여 母親이 罪 中에 나를 孕胎하였나이다」(시51 : 5) 「우슬초로 나를 淨潔케 하소서 내가 淨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51 : 7) 하나님은 이처럼 悔改하는 者를 용납하신다.

주전 8世紀의 預言者들의 그 中心思想도 그 社會의 모든 構造的인 惡을 폭로하면서 한결같이 主張한 것은 罪를 悔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호6 : 1)고 외쳤으며, 이사야 先知者는 「오라 우리가 서로 辯論하자 너희 罪가 朱紅같은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眞紅같이 붉을 지라도 羊털 같이 되리라」(사1 : 18)고 하며 悔改하고 돌아오기를 외쳤다. 예레미야 先知者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災殃에서 뜻을 돌이키겠다(렘18 : 8) 하였으나 그들의 외침을 外面하고 惡을 向하여 나가던 北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南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悔改하는 者의 罪를 容恕하신다.

2) 祭祀를 통한 罪의 解決

하나님은 人間이 아무리 善하게 살고자 해도 不知中에나 혹은 故意的으로 하나님의 法을 어기게 된다는 事實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百姓이 지켜야 할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故意的인 犯罪을 除外하고 혹 兇惡에 또는 意外에 모르고 犯하는 罪는 悔改하고 祭物을 바치면 그 罪는 가리울 수 있다고 하였다.²⁾

모든 罪의 大小를 막론하고 罪는 피로 씻어야 한다. 즉 「피 흘림이 없은즉 赦함이 없느라」(히9 : 22) 하였으므로 個人的으로 贖罪하는 것 외에 1년에 한번씩 大祭司長이 온 會衆을 위하여 贖罪祭를 드렸다(레16 : 16). 個人이 든지, 民族 全體든지 罪는 自服하는것 만으로는 不足하므로 반드시 피흘리는 祭物이 있어야 한다.

舊約聖書는 다섯가지 祭祀 즉 燔祭, 素祭, 和睦祭, 贖罪祭, 贖愆祭가 있는데 燔祭, 素祭, 和睦祭는 모세 以前에 이미 있던 것을 모세때 制度化 한 것이요, 贖罪祭와 贖愆祭는 모세 때부터 始作된 祭祀다.³⁾ 燔祭와 和睦祭는 贖罪하는 뜻이 있으나 이는 주로 못된 性質을 고치라는 뜻이 더 強하다.

① 贖罪祭를 통해서 解決하는 罪

贖罪祭는 모든 罪를 解決하는 것은 아니다. 故犯罪과 또 物件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만 해당된다.

贖罪祭의 뜻은 하나 뿐이다. 그 희생의 피의 공로로 罪를 가리우는 것 뿐이다.⁴⁾

贖罪法을 보면 우리의 罪가 等分이 있는데, 法을 배워서 아는자와 모르는者 등의 구분이 있다. 그래서 그 等分은 祭物에서 차등이 있다. 祭司長이 犯罪하면 贖罪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를 祭物로 드릴 것이며(레4 : 3~12) 全國民이 犯罪하면 贖罪하기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를 드릴 것(레4 : 13~21)이며, 族長이 犯罪하면 贖罪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릴 것(레4 : 22~26)이며, 一般 百姓이 犯罪하면 그 家勢대로 祭物을 드리되 다 族長의 祭物만 못하게 드린다(레4 : 27~35). 그 내용은 암염소, 혹은 암양 한 마리, 비둘기 두 마리(레5 : 7~10)나, 밀가루 한 에바의 십분이 일(레5 : 11~13)이다. 이 祭物들 중에 밀가루는 家勢가 너무 약하여 다른것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는 祭物이다.

짐승의 피 뿌림은 祭司長만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大祭司長 예수께서 우리의 罪를 贖하시려고 친히 自己의 피를 뿌리셨다.

2) 광안련, 레위기 강의(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4), p.35.

3) Ibid., p.35.

4) 광안련, p.36.

② 贖愆祭를 통해서 解決하는 罪

이 祭祀의 뜻은 히브리語 뜻으로는 財物에 대한 罪를 뜻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罪의 내용을 보면 아간의 財物盜賊의 罪(수7:1), 偶像崇拜罪⁵⁾(대하28:22, 29:6), 姦淫한 罪⁶⁾(민5:20, 27) 등이다.

贖愆祭의 重要한 뜻은 贖罪祭와는 달리 自己의 잘못을 悔改하는 뜻으로 祭物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物件에 대해서는 償還해야 한다. 또 償還할 때는 반듯이 손해 보인 것에 1/5을 더해서 상환해야 하고, 또 하나님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수양한마리로 贖愆祭를 드려야 비로소 그 罪를 가리울 수 있다.

이 罪에 해당되는 罪는 하나님의 物件에 대한 犯罪와 사람의 物件에 대한 犯罪로 區分한다.

하나님의 物件에 대한 罪(레5:14~19).

하나님의 物件에 대해서 열마를 盜賊하였는지를 알만한 것으로(레5:14~16), 알지 못하고 처음익은 열매나 짐승의 처음난 것을 먹은죄, 贖罪祭物의 고기를 먹거나, 진설떡을 먹거나, 1/10조를 떼먹은 罪 등을 포함하며 또 값을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할 때에라도 自己의 생각대로, 본 액수에 1/5을 더해서 상환하고 수양 한마리로 祭祀를 지내야 한다.

사람의 物件에 대한 罪

청지기가 主人의 물건을 취한 죄, 商人이 거짓으로 폭리를 취한 죄, 뇌물 받은 죄, 고용인의 값을 주지 않은 죄, 습득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悔改를 하고 하나님과 關係를 회복하기 爲하여 짐승이 대신 피흘려 허물을 가리울 수 있었다. 이것은 장차 예수가 人類의 代贖者로서의 예표다.

5)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

6) 유대풍속은 부인은 자기 남편의 소유물로 인정하므로 만일 부인이 간음죄를 범하면 이는 그 남편의 所有權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드려 죄를 가리워야 함.

3) 舊約에서 祭祀로서 解決할 수 없는 罪

舊約에 罪를 赦하는 祭祀가 있었으나 모든 罪가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罪(레14:16),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자(신13:6~9, 27:15), 安息日에 일하는 자(出31:15) 등이다.

人間에 대한 것.

殺人者(특히 故殺者)(민35:31, 出21:12~14) 父母를 치거나 詛呪하는 자(出21:15, 17, 레20:9), 사람을 후리거나 매매하는 자(레20:16), 姦淫한 자(레20:20), 짐승과 交合하는 자(레20:15) 등의 罪는 赦하는 길이 없고 반드시 죽어야했다.

비록 舊約聖書에서 罪를 지적할 뿐 아니라 赦罪의 方法으로 祭祀制度가 있으나 不完全하여 모든 罪를 解決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보다 完全한 贖罪法을 要求하게 되고 이 祭祀制度는 장차 하나님의 完全한 贖罪의 豫表로 주신 것이다.

2. 新約에서 罪의 解決

舊約聖書가 罪가 무엇임을 말한다고 하면 新約聖書는 그것을 온전하게 解決하는 福音의 기록이다.

1) 悔改를 要求하시는 그리스도

洗禮요한이 요단江 부근 各處에 와서 悔改의 洗禮를 傳播하였고, 예수도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悔改하고 福音을 믿으라」(막1:15)는 말로 그는 宣敎를 始作하였다.

그 以後 예수의 宣敎全體가 悔改에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에의 복귀를 말한 것을 시사한다.⁷⁾ 예수는 山上說敎에서 人間속에 內在하고 있는 罪를 지적하고, 人間에

7) 이성호 편, p.2222.

何해진 避할 수 없는 審判을 말하였고(마5 : 22, 28, 29), 또 地獄 및 永遠한 형벌에 대해 언급하였다(마10 : 28, 23 : 33).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곧 悔改의 부르심이다. 예수는 自己가 이 世上에 오신 目的에 대하여 「내가 義人을 부르러 온 것이 아 니요 罪人을 불러 悔改시키러 왔노라」(눅5 : 32) 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를 얻었도다」(눅15 : 18) 하면서, 悔改하면서 容恕를 求하는 탕자의 비유는 悔改로 因한 神人間의 멀어진 關係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탕자의 비유는 完全히 하나님을 떠났던 人間, 自己 驕慢으로 罪惡속에 빠졌던 人間이 하나님의 사랑에 依하여 悔改하고 關係를 회복한 한 罪人の 悔改를 모델로 보여 주고 있다.⁸⁾

2) 人類의 새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罪가 世上에 들어 왔으며(롬5 : 12) 그로인하여 모든 사람이 罪人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代表者를 통해서 罪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전15 : 43, 47).

예수는 첫 사람처럼 땅에서 나서 땅에 屈한 者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 셧고(고전15 : 47) 모든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試驗을 받았지만 罪는 없으신 분이다 (히4 : 15). 故로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고는 永生을 얻을 수 없고(요3 : 16) 예수는 分明히 내가 곧 길이요, 眞理요 生命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다(요14 : 6)고 하였다.

人間의 罪는 人間의 어떤 善行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즉 「내가 잣물로 스스로 씻으며 數多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罪惡이 오히려 내앞에 그져있다(2 : 22) 고 하였다. 基督教歷史에서 아담의 타락은 그의 後孫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⁹⁾고 하며 人間은 하나님의 은총의 助力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¹⁰⁾고 主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즉 「모든 사람이 罪를 犯하였으매 하

8) 김찬국, op. cit., p.47.

9) J. L. 니이브 저, 서남동 역, op. cit., p.227.

10) Ibid., p.228.

나님의 榮光에 이르지 못한다」(롬4:23)고 바울은 말한다.

舊約이나 新約이나를 막론하고 罪를 해결하는 데는 無罪한 存在의 피가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恩惠의 豐盛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救贖 곧 罪 赦함을 받았음」(엡1:7)을 말한다.

舊約에서 大祭司長은 自己를 위하여 贖罪한 後에, 百姓의 罪를 爲하여 날마다 祭祀를 드렸지만(히7:27) 예수는 永遠히 계신고로 그 祭司 職分도 같리지 않으며, 自己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者들은 온전히 救援하실 수 있는 大祭司長이시다(히8:24, 25). 이 大祭司長은 거룩하고 惡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罪人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히 되신 분이다(히8:26).

하나님께서 우리의 罪惡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며(사53:6),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罪를 담당하시려고 單番에 自己를 드려 罪를 없게 하시며, 예수가 全人類를 代贖하기 위한 十字架위에서 운명하실 때 聖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즉 예수는 大祭司長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自己 피로 永遠한 贖罪를 이루사 單番에 聖所에 들어 가셨다(히9:12).

이렇게 人類의 새 代表者인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被造物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存在로서 罪에서 해방되어 누구도 定罪하지 않는 삶을 산다.

V. 結 論

罪中에서 태어나고 罪惡中에서 罪를 지으며 살다가 마침내 死亡의 그늘에서 永滅할 수 밖에 없는 人間에게 聖書는 人間의 罪가 얼마나 깊숙히 침투되어져 있으며 人間의 어떤 노력으로도 罪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罪人임을 宣言한다.

아담의 犯罪以後는 낙원을 상실했으며 墮落한 罪人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後孫全體가 罪人이 되었으며 善을 行할 能力을 상실했다.

하나님은 이 自己 形象으로 만들었다가 墮落한 人間을 사랑하셔서 그의 獨生子를 주셔서 또 하나의 人類의 代表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를 通해서 人類를 救援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요, 先知者요, 祭司長이요, 王이요, 그의 教會의 머리오, 救主요, 모든것의 상속자요, 世上의 審判主로 삼으시고 그에게 永遠前부터 한 백성을 주사 그의 씨가 되게 하시고, 때가되매 그로 말미암아 救贖받고, 부르심을 받고 義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¹⁾

그래서 悔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信者의 罪를 처리하시는데 첫째로, 우리의 모든 罪를 赦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對敵하는 儀文에 쓴 證書를 塗抹하시고 際하여 버리사 十字架에 못박으셨다(골2: 13, 14). 즉 지워버려 주셔서 다시는 記憶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뾰족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깨끗이 지워 버리신다(사43: 25, 44: 22). 둘째로 東이 西에서 먼것 같이 우리 罪過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시103: 12). 東과 西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 같이 멀리 치워버리신다.²⁾ 세번째로 우리의 罪를 그의 등 뒤에 던졌다고 하셨다(사 38: 17). 이 말씀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게 하신다는 뜻이다. 네째로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미7: 19) 하셨는데 바다는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곳에 처리하신다. 다섯째, 다시는 記憶지 않으신다(히10: 17).

이처럼 罪를 처치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自身을 不義의 兵器로 罪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義의 兵器로 使用되도록 함에 있다.

1) 김혜성, 남정숙 공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울: 성림문화, 1980), pp.51~52.

2) 이성호 편, p.1984.

參 考 文 獻

- 곽안련, 레위기 강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4.
- 김찬국, “聖書에서 본 罪”, 기독교사상(1977. 4)
- 김혜성, 남정숙 공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성림문화, 1980.
-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ol.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원, 1977.
- 뵈트너, 로레인, 칼빈主義豫定論, 서울: 백합출판사, 1972.
- 유광웅, “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빛과 소금(1987. 11)
- 이성호 편, 새성서 대사전, 서울: 성지사, 1978.
- 이영선, 구약성서에 나타난 죄개념연구, 미간행 석사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87.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_____, “罪의 敎理史的 考察”, 기독교사상, 1977. 4.
- 니이브, J. L, 基督教敎理史,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바클레이, W, 使徒信經 平解, 서기산역, 서울: 교문사, 1972.
- Calr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II, Trans. Henry Beveridge,
 michigain: Eerdaman's Pubulishing Compung, 1981.
- _____, 김종흡 외 3인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Buttric G. A. ed, The Interpreters Pictionary of The Bible Vol.IV, N. Y: Abingdon
 press, 1962.
- Charles F. Pfeifer, ed, Wycliffe Bible Encyclopedia, Vol.2 Chicago Moody Press,
 1975.
- Porubucan Stefan, Sin in The Old Testament Herder Roma, 1963.
- 聖經全書

여 백